



tulip공원에서 생각에 잠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tulip공원을 괴켄호프를 찾았다. 박 전 대표는 이 공원에서 한-네덜란드 50주년을 기념하는 tulip을 심었다. [헤이그=연합뉴스]

“야권주자 유시민보단 손학규” 분당 우파, 전략적 선택 했다

분당을 재·보선 또 다른 해석

4·27 재·보궐선거에서 ‘분당우파’의 이반(離反) 현상은 분당의 상징인 ‘정자동’에도 나타났다. 정자동은 대형 평수의 주상복합단지라 붙여 있어 분당에서도 가장 부자 동네로 불린다. 이곳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22.2%)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44.0%

라는 말이 들었다”며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손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게 크게 보면 보수층에 더 낫다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파크뷰에 거주하는 진승구(55)씨는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가 내년에 야권에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분당을 선거 결과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실망감을 반영한 ‘회고적 투표’와 손 대표의 내년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둔 ‘미래형 투표’가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vs 손학규’ 대선구도

보수층에 더 낫다고 판단

를 기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분당우파의 ‘전략적 투표’가 작용한 것이라 설명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 때 야권 대선주자가 누가 될 때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정자동에 거주하는 김인숙(58)씨는 1일 “이번에 손학규 후보가 떨어져서 내년 대선 때 ‘박근혜 대 유시민’의 대결구도가 되는 것보다는 손 후보가 당선돼서 ‘박근혜 대 손학규’의 구도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 들었다”며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손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게 크게 보면 보수층에 더 낫다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파크뷰에 거주하는 진승구(55)씨는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가 내년에 야권에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분당을 선거 결과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실망감을 반영한 ‘회고적 투표’와 손 대표의 내년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둔 ‘미래형 투표’가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 대표의 분당을 승리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이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상대로 ‘통합론’을 꺼내면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내 486·친노무현계가 주축인 ‘진보개혁모임’은 대선에서 워크숍을 열어 통합론의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이 모두 합쳐 단일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통합의 일차적 타깃은 역시 ‘유시민’이다. 하지만 참여당은 이를 통합이 아닌 ‘흡수’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김경진·민경원 기자**
kjink@joongang.co.kr

“균형발전, 굉장히 소중한 가치”

박근혜 “한 지역은 너무 못살고 다른 곳은 너무 비대 ... 그런 게 통합 저해”

네덜란드 동포와 만찬서 강조

▶네덜란드 교민=“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뭔가.”

▶박 전 대표=“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이 어느 곳, 어떤 계층에서 태어나도 독특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나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 복지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아닐까.”

대통령 특사로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헤이그에서 가진 재외동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자관’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몇 마디를 더 강조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불신만 생기고

끝나기 때문에 역시 신뢰가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과 지도자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교민이 “네덜란드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다”라고 말하자 “균형 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공감하면서 “한 지역은 너무 못살고, 한 지역은 너무 비

이준 열사 이후 104년 만에

‘한국 특사’로 헤이그 방문

대해지고 그런 것이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국가에 ‘달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직업도 그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달인’의 경지에 이르면 ‘유튜브’(미국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대다. 세계에 직업 숫자가 13만 개, 우리나라엔 알려진 직업 수가 1만 개라 한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길을 택해라’는 직업은 얼마나 될 것 같을까. 한 20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요만한 데서 출세하려니 미어터지는 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이항기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준 열사가 1907년 대한제국 특사로 온 이후 박 전 대표는 ‘104년 만의 대한민국 특사’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방명록에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다 순국하신 열사님, 저희 후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내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기자들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역할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내 얘기는 나중에 국내에 가서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헤이그=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YS, 다혈질에 보수적 ... DJ, 외교정책에 익숙”

2006년 주한 미대사관 평가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

“YS는 무식한 다혈질, DJ는 외교 전문가.”

주한 미국대사관이 2006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평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2006년 7월 18일 미국대사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분석해 미 국무부로부터 전달한 외교 전문에 포함됐다.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30일 이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전문에선 반 총장에 대해 “매우 다른 성향의 세 대통령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집권 기간 고속승진을 거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영삼(YS)·김대중



(DJ)·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덧붙였다. 먼저 YS에 대해선 “대부분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다혈질(hot-tempered)의 보수주의자”라고 언급했다. DJ에 대해선 “국제 정치적인 인물이며 외교 정책의 모든 방면에 익숙하다”고 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졸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서 신인이지만 관점이 강하고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Mom & Baby Academy 모집

중앙대학교에서 인산부·영유아 신체건강증진과 운동발달을 위한 운동 통합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Mom Academy

인산부들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고 아름다운 엄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인산부 바른자세 운동교실**
과학적 자세 측정법을 통하여 체형과 자세의 문제점을 진단, 요통 예방과 건강한 아기를 낳는 체중관리, 체격적 운동 실시, 인산부의 몸의 변화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적응과 임신성당뇨, 고혈압 예방관리
- **산후체형관리 교실**
과학적 자세 측정법을 통하여 체형과 자세의 문제점을 진단 인산부의 빠른 회복과 체형관리, 건강관리

Baby Academy

인간의 전생애를 두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에 운동발달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균형잡힌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의 시기에 맞는 운동발달 측정법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적절한 발달 프로그램 제공

- **영유아영어발레교실**
발레 기본 동작에 영어단어와 신체적 다양한 표현방식을 습득
- **유아체조교실**
체조의 기본동작을 통한 유아운동발달, 신체기능, 리듬감향상
- **베베집들레이 아카데미**
음악과 함께하는 신체감각 통합교육
- **스포츠스태킹(뉴스포츠)**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도, 협응력, 인지발달능력, 신체훈련에 도움
- **뽀뽀뽀뽀성장교실**
다양한 점프와 스트레칭을 통한 아이들의 키성장과 균형잡힌 체형형성

- 개강일 : 2011년 5월 16일 (홈페이지참조)
- 접수방법 : <http://mecca.cau.ac.kr> (인터넷 접수 및 결제 가능)
- 문의처 : 02) 820-6213~5

CAU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http://mecca.cau.ac.kr>

세계 최고를 꿈꾸는 당신!
르 꼬르동 블루와 함께 그 꿈을 키우십시오

세계가 인정한 110년 전통의 프랑스 요리명문 -
르 꼬르동 블루 수강생 모집

2011년 6월 20일 요리·제과과정 개강을 앞두고 요리시연을 포함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 예약은 이메일이나 상담전화로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719-6961~2 | 이메일 : cordon@sm.ac.kr
웹사이트 : www.cordonbleu.co.kr

- 지원 자격 :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의 남녀 (수업장관 및 입학상담 상시 가능)
- 입학설명회 : 1차 - 5월 14일(토) 오후 1:30 ~ 3:30
2차 - 6월 2일(목) 오후 5:00 ~ 7:00
※ 참가비 없음,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석 가능
- 모집 과정 : 요리·제과
-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 호스피탈리티 산업 특화 석사학위과정 MBA 02)710-9073
· 글로벌 외식경영 학사과정 02)710-9114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01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1. 모집학위, 모집학과 및 인원

- 가. 석사학위과정 : 국제학과 및 한국학과 (00명)
- 분야 : 국제통상, 국제명화안보, 국제개발협력, 지역학, 한국학
 -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
 - 동남아지역 전공의 경우,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현지연수 기회를 부여함.
 - 재학 중 미국, 일본 유수대학의 대학원 교환학생, 복수학위 지원가능
- 나. 박사학위과정 : 국제학과 (0명)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3. 전형일정

- 원서접수 :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s.korea.ac.kr>)에서 지원서 작성
- 접수일시 : 2011년 3월 15일(화) ~ 5월 13일(금)
- 접수방법 :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일시 : 2011년 5월 28일(토) 09:00
- 합격자발표 : 홈페이지 (<http://gsis.korea.ac.kr>)에 게시

4. 문의처

- 국제대학원 학사지원부
- 전화 : 02)3290-1391~3 · 팩스 : 02)929-0402
- E-mail : gsis@korea.ac.kr
- Homepage : <http://gsis.korea.ac.kr>



고려대학교



르 꼬르동 블루 - 숙명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
Le Cordon Bleu - Sookmyung Hospitality Programs

